대한민국 부통령 인촌 김성수

주대환(2015년 6월 17일)

1. 왜 오늘 다시 인촌인가?

해방된 지 70년 되는 올해, 그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에 만족하고 감격하면서, 또는 그 한계를 걱정하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자는 이야기가 퍼져 나가고 있다. 아마 당연히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선열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도 고조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분을 더 높이 세우고,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지는 각자의 자유이고 그 진폭은 매우 크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정이 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 전부가 건국에 찬성하고 참여한 나라가 아니었다. 또한 독립운동가 전부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일제가 광분하던 시기에 일제에 대해 저항을 계속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시기를 국내에서 보낸 분들의 경우에는 다수가 저항을 포기하였다. 그럴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거나 일부는 심지어 이른바 '종북'의 의심을 받게 되고, 일제 말기에 독립운동을 포기한 분들의 경우에는 '친일' 시비라는 치욕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당대의 사람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건국 초기 반민특위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는 조봉암과 김성수도 마찬가지 일을 당하고 있다.

인촌 김성수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그때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통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 같다. 하지만 1993년부터 그의 건국훈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993년 7월 8일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역대 독립유공서훈자 가운데 친일의 흠결이 있는 자는 가려내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대상인물로 김성수를 포함한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논란 끝에 1996년 국가보훈처는 친일 혐의가 있는 독립유공자 5명의 서훈을 취소했지만, 여기서 김성수는 제외되었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보훈처가 동아일보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비판을 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는 "친일 혐의가 분명한 인촌에게 주어진 건국훈장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인촌 김성수는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광복회가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수록되었고, 2005년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와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고려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발표한 '고려대 100 속의 일제잔재 1차 인물' 10인 명단에도 들어갔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언론계 친일파로 수록되었다. 2009년 11월 27일 인촌기념회에서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마 지금도 동아일보, 인촌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과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80년대 이후 학생회 등이 요구하여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던 묘소를 남양주로 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동상도 여러 차례 수모를 당했다.

1962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신익희 선생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는 2급인 대통령장을 추서한 것도 김성수 선생의 친일 논란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에게는 바로 일제 말기의 행적 때문에 평가에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진다. 그는 경성방직, 고려대학교, 동아일보를 만든 주역이니 실로 큰 족적을 남겼으니, 그런 그에 대한 대접이 건국훈장 2급이라 하면 온당한 것일까?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당대로 가까이 갈수록 후해진다는 인상이다. 왜 그럴까? 모두들 어려운 시기에 그의 물질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까? 그보다 22살 젊은, 1937년에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성곡 김성곤은 평소 '인촌 김성수를 가장 존경하였다고 하며, 그의 인품에 감화를 받아 김성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김성곤은 인촌을 본받아 자신도 금성방직, 쌍용양회를 설립하고, 국민대학교를 지원하였고, 고향의 현풍학원을 인수 운영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그를 알고 지냈으며, 해방 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를 지낸 허정(許政)은 "인촌에게는 개인적인 야심이 없었다. 그에게 명예나 권세를 추구할 야심만 있었다면, 그는 해방 후 자신의 야심을 손쉽게 달성할 많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예나 권세에는 조금도 뜻이 없었다. 어떤 곤경이나 위기를 맞아, 자칫하면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자리를, 맡아 위기를 수습하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곤 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의 인상은 드물게 보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간, 대화와 타협의 인물, 갈등의 조정자, 근대인(近代人), 부르주아지이다. 성균관대학교 서중석 교수는 그의 저서 <조봉암과 1950년대>에서 김성수가 민주당 창당 전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범야신당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는 김성수 자신이 앞에 나서려 하지 않던 점을 들어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주도권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현대 정치인들에게는 귀감"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2. 인촌 김성수의 탄생과 학생 시절

인촌 김성수 (1891~1955)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인촌에서 태어났다. 울산 김씨 경중 (1863~1945)과 장흥 고씨(1862~1938)사이의 4남으로 출생하였으

니 그 시기가 1891년 10월 11일(음력 9월9일) 이었다. 3명의 형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 인촌이 장남이 되었다. 6년 뒤(1896년) 아우 수당 김연수(1896~1979)가 태어났다. 인촌은 하서 김인후(1510~1560)의 13대 손이다.

백부이며 양부인 원파 김기중은 아들이 없었다. 김씨 문중의 후사문제로 열린 가족회의에서 동생의 아들 인촌을 백부에게 양자로 입적시키도록 결정이 났다. 인촌의 나이 3살 되던 때였다. 원래 인촌 집안의 고향은 전남 장성이었고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이 고창으로 이주한 것은 조부 김요협(1833~1909)때였다.

인촌의 증조부 김명환은 어느 날 전북 고창 해리에 볼 일을 다 보고 장성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날이 어두워져 인촌리에 이르자 그는 부유한 만석꾼 집으로 소문난 정계량 진사댁을 찾아 정중히 하루 유숙을 청탁하였다. 정 진사가 쾌히 승낙하여 밤늦도록 술상을 가운데 두고 한담을 나누던 중 이야기가 혼사문제로 발전하여 그의 3남 김요협과 정 진사의 외동여식을 짝 맞추어 혼인시키게 되면서 그의 조부가 처갓집인 고창으로 이주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이곳이 인촌의 고향이 된 것이다.

집안에서는 13살밖에 안 된 어린 김성수를 결혼시키게 되었다. 창평의 명문거족인 장흥 고씨 집안의 규수 고광석(1886~1919)을 배필로 맞았다. 김성수보다 5살이 연상인 18세의 규수였다. 김성수의 장인이 된 사람은 학자 고정주(1863~1934)였다.

고정주는 창흥의숙(뒤에 창평학교로 발전)을 설립하여 향리의 청소년들이 구학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신식 교사를 초빙하여 한문, 산술과 영어, 일어, 한국사 등을 가리치고 있었다. 김성수가 창평의 처가에 오자 그의 장인 고정주는 창평읍 월동에 특별히 영학숙이란 신식학원을 새로이 열고 아들 고광준(전 동아일보 사장 고재욱의 부친)과 김성수가 재래식 학문에서 벗어나 신학문에 접하도록 특별히 배려하였다.

김성수는 평생의 동지를 처음 이 영학숙에서 만났다. 그가 곧 뚝심 있는 "벼락대신"이란 애칭을 붙여준 고하 송진우(1890~1945)라는 인촌보다 한 살이 위인 벗이었다. 부친의 권유를 받고 또 한사람의 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그는 고창 흥덕 출신 근촌 백관수(1889~1950 납북)로 인촌보다 2살 연상이었다.

인촌은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고, 고하는 일본을 알고 이기려면 도쿄로 가서 배우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핏대를 올렸다. 서울 유학을 주장하던 근촌도 심사숙고 끝에 두 친구의 고견을 따라 도쿄 행에 찬성하였다. 결국 세 사람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근대화 경험과 근대 학문을 더 배우고, 실력을 키워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세 친구가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설득하여 도쿄 행을 결행하기까지는 이만저만 벽이 높고 깊은 것이 아니었다. 김성수가 부모님에게 감히 도쿄 행을 입 밖에 냈더니 당장 안 된다고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런 위험한 곳으로 애지중지하는 장손을 멀리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결국은 부모 몰래 인촌과 고하는 군산에서 도항을 하여 일본땅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하였다. 그때 인촌의 나이 18세, 고하의 나이 19세 때였다. 1911년 와세다대학 본과(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은 그의 나이 21세 때였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4세에 졸업하였으니 만 3년을 와세다대학에서 정진한 셈이다.

도쿄의 명문 사립대학인 와세다대학은 일본인 거물 정치가 오쿠마가 설립한 유명한 대학이었다. 이 학교에 한국인이 많이 입학하였던 이유가 있었다. 와세다대학을 창립한 오쿠마는 일본 규슈에서 하급무사로 태어나 자유민권운동가로 정계에 나서서 영국식의 온건입헌론을 대표하는 개진당의 당수로 두 번에 걸쳐 총리대신, 즉 수상을 역임한 입지전적인 거물 정치가요 경세가, 교육개혁가였다.

인촌은 그의 웅대한 포부와 강한 추진동력에 찬사를 보냈다. 인촌이 뒷날 중앙학교나 보성전문을 인수 경영하였던 모델도 따져보면 오쿠마이고, 와세다대학 출신이 새로운 일본건설의 최선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인촌이 하숙 생활 하다가 독채 전세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 숙소는 곧 도쿄 한국인 유학생들의 중요한 집합장소로 변하였다. 부잣집 아들 인촌이 워낙 인심이 좋고 교만하지 않은 고운 성품으로 이 집을 한국인 유학생이면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개방하여 마치 한국인 유학생 회관과도 같았다.

덕분에 인촌은 와세다대학 시절에 매우 귀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촌과 같이 와세다대학 동문인 현상윤, 최두선, 양원모 외에 도쿄제국대학의 김준연, 박용희, 이강현, 메이지대학의 조만식, 김병로, 현준호, 조소앙, 정노식, 그 외 신익희, 홍명희, 김도연, 유억겸, 김우영 등이 그들이다.

그 외 홍사익(일본육군중장), 지정천(광복군총사령), 이응준(초대육참총장), 김광서(독립군양성), 조철호, 권영한, 김준원, 염창섭 등 일본육사 학생 20여명도 자주 와서 고국 소식을 주고받곤 하였다. 도쿄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이질적으로 대하였으나 인촌이 거중 조절로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게 하였다. 인화 조정력이 뛰어난 인촌의 인품 덕분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도쿄에서 만난 친구들 가운데 유독 설산 장덕수 (1895~1947)에게는 애정이 더 당겼다. 설산은 인촌보다 4년이 아래였다. 황해도 재령 태생인 그는 빈농의 자제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관청의 사환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18세 때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여 21세경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하면서 인촌을 알게 되어 불의의 총격으로 별세할 때까지 인촌과 가장 가깝고 깊은 연분을 맺었다.

설산은 입지전적인 특출한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일본어로 전국대학생 웅변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하여 일본인과 한국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때는 섬에 유배되었다가 몽양 여운형의 주선으로 하의도에서 풀려난 뒤 유창한 일본어로 그의 통역을 맡아 몽양의 도쿄제국호텔에서의 사자후를 생생히 전달하여 일본정계 거물들을 일약 감동시켰다. 인촌은 설산뿐 아니라 여러 학우들을 남몰래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감동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3. 중앙학교, 보성전문(고려대학교)과 인촌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욕이 가득 찬 20대 청년 인촌은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경영난에 봉착한 중앙학교를 인수하였다. 그는 1915년 4월 27일 중앙학회로부터 중앙학교 경영의 완벽한 인수절차를 종료하였다. 양부와 생부가 공동 설립자로 등록되었다. 11월 10일 조선총독부 고등보통학교령에 의거하여 학칙을 변경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개정 시행하였다.

당시 인촌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와 근 1년간을 두고 100여 번이나 되는 끈질긴 청원과 회견 끝에 겨우 인가를 얻었다고 한다. "왜 청년을 교육하려 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던지는 학무국장의 질문에 인촌이 "우리 민족도 남과 같이 잘 살려고 함이오."라고 즉답하자 학무국장은 바보같은 소리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한다. 그는 조선인의 교육은 우리 조선총독부가 맡아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돈이 남아돌아가면 실업에나 활용하라고 핀잔을 주었다고도 한다.

이제 중앙학교의 존재는 조선사회에서 누구도 무시 못 할 하나의 산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인촌은 교장을 1년 정도 역임하고 1918년 3월 고하 송진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고 최두선을 학감으로 보임하였다. 자신은 물론 평교사로 돌아가 본래의 교육에 충실하였다. 총책임자 지위는 남에게 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조력자, 후원자의 자세로 떠받드는 내조형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처세의 묘를 살린 것이다.

도쿄 유학시절부터 웅대한 계획을 추진하였던 포부가 곧 건실한 사립학교의 운영이었으므로 그는 교육에 진력하였다. 그가 은밀한 중앙학교의 숲속 뒤편에 숙직실을

마련한 것은 단순히 경비만을 위한 초소의 마련이 아니었다. 그것이 곧 사립 중앙학교 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민족운동의 진원지인 유명한 숙직실이었다.

이곳에서 동지들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할 혁명적인 3.1운동을 계획하고 동지들을 모아 연락을 취하였던 것이다. 인촌이 28세, 고하가 29세, 현상윤이 26세였으니 이 세 사람은 곧 뒷날 3.1운동의 진원지로서 이 학교 숙직실을 민족운동의 요람지로 삼아 극비리에 보람 있게 한국현대사를 창조해 나갔던 것이다. 천도교인 이병헌의 "내가 본 3.1운동의 일 단면"이라는 앞의 글 속에서 중앙학교 숙직실과 연관된 중요한 증언을 글로 남기고 있어 경청할 가치가 있다.

"당시 중앙학교 교장 송진우 선생은 최린 선생과 친교가 있었고 동교 교사 현상윤(1893~1950 납북) 선생은 보성학교 졸업생으로서 최린 선생과는 실제의 친의가 있는 신우라,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서로 만나 밀담할 때 송진우 선생은 "나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실천하려면 인물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최남선 선생과 상합하기로 하였다. 최린,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선생은 계동 김성수 선생 댁에 모여 운동의 대표로 구한말 중신 원로 중 박영효, 윤용구, 한규설, 윤치호를 교섭하기로 각각 분담하고, 독립선언서는 문장가 최남선이 기초하기로 하였다."

이때 고하는 인촌에게 더 이상 깊이 나서거나 표면에서 진두지휘함을 극력 억제하였다. 그것이 인촌이 민족대표 33인이나 동 48인에서 탈락한 이유였다. 고하는 도산 안창호가 체포되어 그가 세운 평양 대성학교가 쇠잔해지는 선례를 남겼듯이 인촌이 민족운동 전면에 나섰다가 자신의 분신인 중앙학교도 그 같은 운명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일선에서 뒤로 물러서길 강력히 권유하였다.

보성전문학교는 원래 북청 출신 거물정객 이용익이 1905년 4월 3일 현 서울시 수송동 노어학교 교사에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법학과 등 5개 학과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법률학과와 상학과의 두 과만 문을 열었고 수업 연한은 2년이었다. 처음부터 이 학교는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그 뒤 이 학교를 인수 경영한 것은 천도교의 총수 의암 손병희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인하여 경영자 손병희와 11대 교장 윤익선이 모두 투옥되고 말아 후임으로 김상옥, 고원훈을 거쳐서 낙원동 교사에서 수업을 재개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불경기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보전은 다시 경영난에 봉착하여 고민 끝에 마땅한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보전재단 측에서는 구미로부터 귀국한 재력가인 인

촌에게 이 학교의 인수문제를 조심스럽게 교섭하였다. 교섭 대표로는 같은 종문인 가인 김병로 재단이사를 선임하여 위임하였다. 이리하여 가인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촌이 보성전문을 인수 경영하게 된 것이다. 보전은 지금의 고려대학교이다.

4. 경성방직과 인촌

경성방직을 정식으로 창립하기 2년 전인 1917년, 인촌은 방직을 전문으로 전공한 이강현(1888~1967)의 권유로 광희문 근처에 윤치소가 경영하던 회사인 60여명 규모의 경성직뉴를 인수했다. 이강현은 인촌보다 3년 연장으로 도쿄공업대학을 1911년에 졸업하고 귀국한 뒤에는 이 방면의 전문 학술논문을 집필하며 공업기술 전파에 전념하다가 주변의 권유에 의하여 인촌의 중앙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대방직 전문가였다.

인촌은 윤치소의 경성직뉴를 인수한 다음 방직전문가 이강현 등의 건의로 일본 제품에 대항할 우리의 옷감을 우리 손으로 생산하려고 규모가 큰 시설을 구비한 방직주식회사의 설립을 일제 당국에 신청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이 방직회사를 창립하면서 주식회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당시로서는 여간 큰 모험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본만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였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식으로 경방 주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일인일주의 애국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경방의 설립은 곧 민족운동의 연속이라고 선전하였다. 모두가 적극 호응하였다. 당시의 주식가는 50원이었다. 전국에 걸쳐 산재한 중소지주들을 방문하여 경방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역설하여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었다. 호응도가 좋았다.

경방 설립 취지문은 일제 강점 하에서 실업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우리 민족에게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 주고 민족기술자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와 "우리 옷은 우리 손으로"라는 호소력 있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창한 실력양성운동의 횃불을 높이 올렸다.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얕잡아 보아 주식회사 운영은커녕 구상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아예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이가 곧 인촌이었다.

정관 등을 정하고 취체역 7명, 감사역 5명을 뽑았다. 취체역은 박영효 사장(1861~1939), 이강현(지배인), 선우전, 구포 출신 윤상은, 박용희(전무), 안종건, 인촌 등 7명이었다. 여기서도 인촌은 일반 취체역에 머물고 있었다. 그다운 처신이었다. 여기서 그의 겸손 겸양의 거인다운 인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창

업주였으나 공선사후 정신 속에 뒤로 물러선 그의 개결한 인품을 알 수 있다. 오너라고 함부로 뛰어들 그런 자만하고 경박한 인물이 아니었다.

개화파이며 친일파로 알려진 박영효를 사장에 선임한 것은 총독부와 일제당국과의 껄끄러움을 고려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한다. 경영은 이강현과 양심적인 서민풍의 파주 교하 부호 출신 박용희 두 시스템으로 달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방직전문가 이강현은 이 시기에 삼품이라는 거래방식을 알게 되었다. 삼품이란 면화, 면사, 면포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거래방식은 실물이 없어도 일정한 기일을 정해 놓고 미리 거래할 수 있는 "선물거래"와도 비슷한 양식이었다. 몇 배의 이익을 단시일 내에 볼 수 있는 일정의 투기성 있는 거래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이득을 보았다. 그러다 보니 이강현은 크게 하여 더 많은 돈을 끌어들여야 하겠다는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손실금액이 엄청나 경방이 발칵 뒤집혔다. 이강현 지배인의 진퇴문제가 회사 운명의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대다수는 이강현을 퇴사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촌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을 한번 잃어버린다면 인재를 아주 놓쳐 버린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자신이 사죄하면서 이강현의 퇴임을 적극 만류하여 설득하였다. 골치가 아파 흔들거리던 중역들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인촌은 곤란한 경방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양부에게 손을 내밀었다. 양부 김기중은 이것이 마지막 재산이라는 최후 다짐을 받고 내주었다. 인촌은 토지문서를 거머쥐고 상경하여 즉시 이를 담보로 조선식산은행에서 8만원의 융자를 받아냈다. 양부로부터 받은 토지문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역사까지 지게로 운반하였다가 서울까지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인촌은 대부받은 이 거금을 가지고 경방의 임시사무소를 자택에서 쌍림동 276번지 경성직뉴로 이전하였으며 영등포 역전에 새로 공장건축 공사를 의욕적으로 착수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경방을 살려냈다. 그러니까 기사회생의 새로운 발전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경방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창립 3주년인 1922년 인촌의 아우 수당 김연수가 상무 겸 지배인이 되면서 근대기업으로 크게 육성되었다.

지금의 경성방직은 경방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영등포 공장부지는 타임스퀘어라는 복합쇼핑몰로 탈바꿈 되었고 공장은 용인, 반월, 하남공장으로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인촌의 여동생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인촌과 수당은 타임스퀘어

사장의 외삼촌이다. 아울러 수당 김연수는 경방 경영 후 삼양사를 설립하여 지금의 삼양그룹이 되었다. 다시 말해 경방과 삼양그룹은 같은 그룹은 아니고 사촌간이다.

이 시기에 인촌은 부인과 사별하였다. 1919년 10월 7일 첫 부인 고광석이 자녀분만 산고에 시달리다가 그만 세상을 달리한 것이다. 상만, 상옥, 상기, 상선, 상흠의 4남 1녀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부인의 나이 34세이고 인촌은 29세 때였다. 인촌은 변호사 김우영이 첫 변론을 맡은 정신여학교 학생 중 평북 강계 출신의 이아주(1899~1968)의 재판에 참관하여 이아주의 법정 진술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조선 사람이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라고 조목조목 큰소리로 따지는 이아주에게 반한 것이다. 그녀는 실형 6월을 선고받았다. 고문에 못 이긴 이아주는 병보석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병실에서 청혼하여 둘째 부인으로 삼았다.

5. 동아일보 창간

인촌은 신문발행 허가와 동시에 서울 화동 138번지의 구 중앙학교 교사에 동아일보 창립사무소를 두고 간판을 달았다. 자본금은 100만원을 목표로 삼아 주식을 모집하기로 작정하였다. 경방 때와 같이 인촌은 전국을 돌며 동아일보의 창간 취지를 설명하고 주식 인수를 권유하였다.

"동아(東亞)"라는 신문의 제호는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한 원로 언론인 유근의 제안으로 그렇게 결정되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나라 이름보다는 활동의 규모를 크게 드높여서 동아시아적인 폭넓은 포부로 나가야 무한경쟁 속에서 크게 승리,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찬 건설적 확장적 논리였다. 틀이 잡혀가던 민족의 신문 동아일보는 회사의 성격을 집약한 3대주지(主旨)를 표방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첫째,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둘째,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셋째,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창천(倉天)에 태양이 빛나고 대지에 청풍(淸風)이 불도다. 산정수류(山靜水流)하며 초목창무(草木昌茂)하고 백화난발하여 연비어약(鳶飛漁躍)하니 만물 사이에 생명과 광영이 충만하도다..."라는 창간 선언문은 설산 장덕수의 글 솜씨였다.

천도교 계통의 어떤 종합지는 세간의 평가를 전한다. "동아일보는 배일(排日)신문, 조선일보는 미치광이 신문... 조선에는 신문다운 신문은 없지 않는냐... 동아일보는 동아 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도 민중의 대표신문으로 인정하는 동시... 가끔 압수 정간의 처분을 당하고..."

이 기간에 설산(雪山)의 형인 장덕준 기자가 동북삼성 훈춘에서 일본군에 살해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그는 청산리와 봉오동 등에서 여지없이 독립군에 참패한 일본군이 그 보복수단으로 한국동포 5천여 명을 잔인하게 대량 학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에 취재차 달려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우리 언론사상 최초의 순직기자로 기록될 불행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광수는 1924년 1월초부터 민족적 경륜이라는 5회 연속 사설을 통해 일제통치를 인정하는 유화조건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큰 반대의견에 부닥쳐 여론이 악화되자 동아일보를 자퇴했다. 인촌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져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이런 분란으로 인하여 동아일보는 위신이 크게 추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1929년 인촌은 18개월 간 구미 등을 시찰하기 위하여 외유의 길에 올랐다. 학계와 산업계를 학습하겠다는 것이 여행의 목표였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하와이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를 상면하였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우였다고 본다. 이 시기에 인촌은 우남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인촌이 동아일보사의 창업주로서 제 5대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1926년에 인촌은 인도의 반영(反英)운동의 지도자로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M.K.간디(1869~1948)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 회신으로 이런 내용의 엽서가 동아일보사 사장 김성수에게 도착했다.

사랑하는 친구여
주신 편지는 잘 받았나이다. 내가 보낼 유일한 부탁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무저항적인 수단으로 조선이 조선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1926년 11월 26일 사바르마티에서 M.K.간디

6. 우익의 지도자, 정치가 인촌

인촌은 해방 당시 정치는 고하 송진우에게 맡기고 자신은 교육자로 살 생각이었다. 그는 부인 이아주에게 "나라를 이끌 정치는 고하가 맡을 것이고, 나는 학교일에만

전념하겠으니 그리 아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하의 갑작스러운 피격 사망으로 인촌은 정치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민주당"이라는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은 82명이 모인 가운데 발기총회를 갖게 되었다. 영수급에는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시영 등 원로 7명을 추대하였으며, 총무에 송진우(수석총무=당수), 백관수, 서상일, 김도연, 조병옥 등 9명이 등재되어 있다. 사무국장에는 나용균, 당무부장 이인, 조직부장 김약수, 외무부장에 장덕수, 중앙감찰위원장에 김병로 등이 선임되어 의욕적으로 진용을 구비한 것이다. 여기에 인촌은 직책을 맡아 당무에 간여하고 있지 않았다.

고하 송진우가 동아일보 제8대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12월 30일 새벽에 원서동 자택에서 괴한에게 암살당하였다. 그는 한민당의 수석총무직(당수)도 겸하고 있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인촌이 1946년 1월1일자로 제9대 사장에 취임하였고 한민당의 수석총무도 겸하였다. 이로써 인촌은 타의에 의하여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고하 송진우(1890~1945)는 1890년 5월 8일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인촌과 고하는 창평읍 월동 영학숙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후로 평생을 함께 하였다. 인촌은 고하를 보내고 그에게 "깨끗한 일생이었구나"하고 처연하게 통곡하였으며, 위당 정인보는 고하의 비문 속에서 "장차 나라가 곤궁해 지겠다"라며 개탄해 마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 2월에 소련 군정의 후원 하에 김일성이 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국가를 만들고 토지개혁을 하여 권력을 잡았다. 남한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에 인촌이 서울 종로갑구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으로 한민당원은 물론이려니와 온 국민도 그렇게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촌은 그의 지역구를 조선민주당의 부당수 이윤영에게 양보하였다.

월남한 이북 동포 450만 명의 의사를 대변하는 조민당의 이윤영은 사실상 출마할 선거구가 없어 고민 중이었는데 이 사정을 알고 인촌이 자신의 선거구를 양보한 것이다. 인촌의 이런 배려는 조선민주당 당수 고당 조만식에 대한 경의의 표출이라고도 판단된다. 이후 인촌 김성수는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만 일 년 동안 부통령을 역임하였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대망의 첫 선거인 1948년 5.10 총선은 정수 200명 중 4.3사건이 일어난 제주도의 2명을 제외한 198명이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는 55석을 획득하여 1위였으며, 2위는 한민당(김성수) 29석이고, 다음은 대동청년

단(지정천) 12석, 기타 무소속이 85석(40.3%)을 점유하였다.

전문 103조의 헌법을 통과시킨 제헌국회는 7월 20일 국회에서 정.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석 196명중 180표라는 절대 다수로 우남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부통령에는 팔십 고령의 성재 이시영이 제2차 투표까지 가는 힘겨운 투표 끝에 133표로 당선되어 정. 부통령이 모두 결정되었다.

정. 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종료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집중되었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한민당을 이끌고 있는 인촌이 거론되고 있었다. 우남이 33년 만에 귀국하여 외톨이 신세일 때, 한민당이 우남을 적극적으로 밀어 주었으니 은혜를 입은 우남이 이제는 인촌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나타나 모두가 의아해 하였다. 우남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곧 드러났다. 그는 권모술수에 능한 "백곰"이었다. 국제정치 감각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세련되며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한국적인 의리나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고, 권력의 화신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7월 27일은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날이었다. 언론에서는 계속 국무총리 후보에 인촌의 성명이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남은 태연히 국회에 나와 국무총리 후보에 조선민주당 부위원장인 목사 이윤영을 지명하였다. 인촌의 세력이 원내를 상당하게 지배할 것이란 우려로 인하여 그를 후보 지명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윤영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철기 이범석을 총리로 지명하였다. 한민당은 이범석으로부터 장관 6석을 나누어준다는 약속을 받고 인준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조각(組閣)에서도 역시 한민당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말았다. 인촌과 철기와의 굳은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모두 속았다고 흥분한 당원들은 들고 일어나서 펄펄 뛰며 성토하고 비난하며 울분을 토하여 벌집 쑤셔 놓은 형상이었다. 사실상 미군정기 여당이라 할 수 있는 인촌의 한민당은 이제 야당의 길을 가야만 했다.

인촌은 가족과 같이 1950년 10월 12일경 인민군이 물러난 서울로 환도하였다. 서울에 와보니 경방의 시흥과 의정부의 공장이 모두 폐허가 되고 말았다. 영등포의 공장도 방적공장은 소실되고 말아 슬픔 속에 있었다. 단지 그의 손때가 묻은 동아일보, 고려대, 중앙중학교는 건물이 대체로 무사하였다. 이 시기에 동아일보의 고영환 논설위원, 정균철 영업국장이 학살당하고, 백관수 전 사장 등 상당수가 강제 납북되었다.

초대 이시영 부통령의 돌연한 사임으로 공석이 된 뒤, 그 후임 부통령을 1951년 5월 16일 국회 제 82차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로 뽑게 되었다. 그 결과 인촌이 대한민국의 제 2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51년 5월 17일 김성수 부통령이 취임하였다. 인화 단결을 강조한 인촌은 행정부와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그는 흔히 부르는"각하"라는 권위주의적인 호칭을 못 쓰게 단속하였으며 부정부패의 시발점인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공무원의 부정은 곧 월급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병폐라고 진단한 것이다.

인촌이 부통령에 취임한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직선제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개헌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야당은 내각책임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촌은 끝내 병석에 눕고 말았다.

"나 이외는 누구도 이 나라를 다스릴 적격한 사람이 없다"라는 유아독존적인 우남의 사고방식 때문에 일부 아첨분자들만 그를 따르고, 우남은 점차 독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1952년 5월 29일 인촌은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또 이를 역사에 고발하겠다는 결심 하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는 결국 부통령 취임 1년 만에 정부를 떠나게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1955년 1월 18일 백남훈, 조병옥, 송필만, 김준연 등을 자택으로 오게 하여 소아에 구애받지 말고 대국적 견지에서 과감히 죽산을 영입하여 합작, 대동합류하고 이승만 독재에 민주세력으로 대동단결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였다. 결국 논의 끝에 신당은 죽산을 제외한 채 인촌이 작고한지 7개월 만에 9월 19일 '민주당'이란 명칭으로 정통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화려하게 출범하였다.

와병 중인 인촌의 병세 악화는 여러 가지 정치적 스트레스의 결과가 누적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촌이 지병이었던 뇌혈전증이 자라서 큰 병으로 연결되어 악화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위출혈도 따지고 보면 그런 종류의 작은 병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점차 크게 자란 것으로 미루어 판단되고 있다.

인촌은 그 가족에 따르면 유년기부터 위가 약하였으나 별다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만성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한다. 30대 초부터 이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가족의 증언을 들어보면 짐작이 간다. 더욱이 교육, 언론, 기업, 항일투쟁, 건국사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못하여 점차 피로와 고단함이 축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남 이승만의 독재는 그의 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인촌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십자가상을 쥔 채 사망하였다. 1955년 2월 18일 오후 5시 25분에 65세의 인촌은 운명한 것이다. 인촌이 서거하자 정부는 2월 19일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인촌의 장지는 고려대 캠퍼스 뒷동산이었다.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로 이장하였다.

7. 인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촌은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그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인촌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운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것이 그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가 남긴 족적과 유산은 이 나라를 근대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 교육, 언론에 걸쳐 있으니, 단연 독보적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양조장이나 정미소라도 운영하고, 동네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제방을 쌓아 개간을 하고, 소학교를 세웠던 많은 작은 지도자들의 모델이고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성방직, 중앙학교와 보성전문(고려대학교), 동아일보 등을 통해서 많은 최고급 인재를 키우고 주위에 둘 수 있었다.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선생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이화장과 인촌의 사랑방에서 결정되었다.

그는 타고난 조정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대의 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을 대세로 받아들인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동지 고하 송진우와 설산 장덕수를 암살한 한독당과도 합당을 하려고 하였고, 정치노선이 같은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 단일야당 결성운동 당시에 죽산 조봉암을 배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또 그는 경성방직과 동아일보를 만들 때 자신의 재력만으로 추진하지 않고, 전국의 지주들과 자산가들의 참여를 조직하였다. 그 점이 남다른 점이었다. 그가 항상 친구들을 도와주고 키우고 주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으니 그는 당대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근대적인, 민주적인 지도자였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좌익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공격하기 힘든 우익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박헌영 선생이 발표한 8월 테제를 글자 그대로 실천하여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하였다고 한다면 인촌이야말로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대상이었다.

친일 논란은 그와 시대를 함께 산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물론 친구지간에 서로가 눈감아 주고 봐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니, 나름대로 깨끗하게 일제 말기를 보낸 고하 송진우나 위당 정인보가 인촌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였다면, 그 이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몽양 여운형과 인촌 김성수의 경우가 아주 비슷하다고 느낀다.

죽산 조봉암의 경우에도 친일 시비를 이유로 건국훈장 추서가 보류되고 있다. 하지만 죽산 조봉암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기관에서도 친일 검증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 시비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죽산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다면, 함께 인촌의 건국훈장을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한민당의 당수였고,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만 일 년 동안 하였지만, 국회의원은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항상 배후에 있었고, 조정자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든 네 주역 가운데 사람이다. 그에게 건국훈장 2등급을 추서한 것은 그에 대한 모독이거나 건국훈장에 대한 모독이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닐까?